

‘발전’ 너머,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: 한국의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의 향방

양지혜 (동북아역사재단)

가속화하는 기후변화와 불평등 속에서 역사학은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. 불타는 쓰레기산과 극단적 양극화 앞에서, ‘발전’이라는 낭만적 우화는 그 힘을 잃었다. 역사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. ‘발전’ 너머의 새로운 역사쓰기는 가능한가, 라는 질문이다.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최근 20여년 간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를 살펴보며, ‘발전’ 너머 역사쓰기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.

익히 알려져 왔듯, 한국에서는 2000년대를 전후한 시점에 식민지수탈론, 식민지근대화론, 식민지근대성론 등 여러 중요 논쟁의 핵심적 논의가 전개되었다. 이에 기존의 사학사들은 이들 논쟁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대 전후의 시점에서 그 분석을 매듭짓고, 이후 20여년 간의 관련 논의는 미시적이고, 세분화되며, 과편화되었다는 이유로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. 이 글은 각 산업 분야 및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정리하고, ‘발전’이라는 구심점의 안과 밖에서 새로운 논의가 출현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이다.

■ 양지혜 (梁 知惠 / YANG Jihye)

2021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졸업.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. 한국근현대 사회경제사, 생태환경사 전공

주요저작: ‘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日本窒素の水力発電所建設と「開発難民」問題, 日韓相互認識 9, 2019. A Locked City: The Japanese Company Nitchitsu’s Building of Hŭngnam, Seoul Journal of Japanese Studies 8, 2022. Competing Memories of Mega-Dam Development in Colonial Korea: From Science to Disaster, Acta Koreana, 25-2, 2022.